

金沢漆器

歴史

加賀蒔絵として有名な金沢漆器は、1630年頃、加賀藩3代藩主前田利常が美術工芸の振興に力を入れ、桃山文化を代表する高台寺蒔絵の巨匠五十嵐道甫を細工所の指導者として招き、技法を伝えたことが始まりである。以後、五十嵐家一門は、歴代藩主に仕えるとともに技術を受け継いできた。また、道甫の門人といわれる清水九兵衛や印籠



蒔絵の名工椎原市太夫が江戸から招かれ、加賀蒔絵の基礎をつくった。このように、王朝文化からの伝統を受け継ぎ、藩によって育成された金沢漆器は優美な貴族文化に武家文化が加わった特有のものである。

特色

室内調度品、茶道具などの一品制作が特徴である。指物、挽物、曲物などで造った木地素材に、下塗だけでも布着せ、漆下地など数十工程を経る本堅地塗である。上塗は無地呂色[ろいろ]磨きや花塗仕上げが主で、塗立てや金沢独特の紗の目塗など高雅な変わり塗がある。

蒔絵は平時絵・高蒔絵・研出蒔絵・肉合研出蒔絵など高度な熟練を要する繊細な技法を用い、これに螺鈿[らでん]・平文[ひょうもん]・卵殻[らんかく]などの技法も使われ加飾効果を高めている。



가나자와칠기

역사와 특색

가나자와칠기의 역사는 1630 년경 가가번주 마에다 도시쓰네가 미술공예 진흥에 힘을 기울여, 마키에 기술의 거장을 부른 데서 비롯된다. 그후 그 제자들에게 의해 우아한 귀족문화와 무가문화를 결합한 가나자와칠기가 발전했다.

가나자와칠기는 가구, 차도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옷칠을 하는 공정을 거쳐 칠기가 만들어진다. '로이로미가키'(표면에 광택을 냄), '하나누리'(광택이 없음) 외에 '사노메'(천결의 무늬)가 가나자와칠기의 특징적인 기술이다. '히라마키에'(평탄한 마키에), '다카마키에'(부조문양), 나진 (조개상감), 히라몬 (가느다란 금속박을 사용한 장식), 란카구(계란껍질을 사용한 장식)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돼, 장식효과를 높여 주고 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茶道具, 調度品(차도구, 생활용품)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金沢漆器商工業協同組合(가나자와칠기 상공업 협동조합) 〒920-0918 金沢市尾山町9-13(가나자와시 오야마마치 9-13) TEL (076)263-1157 FAX (076)263-1158